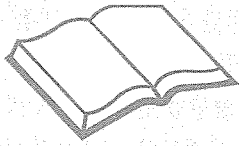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별난 사전들



최성일\*

사전은 한 나라의 지식의 집적물이고, 그 나라 출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아직 믿음직한 국어 사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거품이 심한 학계와 출판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듯하다.

사전의 종류는 국어사전을 필두로 외국어 사전과 백과사전, 그리고 분야별 전문사전이 있다. 이들 사전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독자가 전혀 없진 않으나, 궁금한 항목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참고문헌의 성격이 짙다. 반면, 이제 살펴볼 별난 내용을 담은 책들은 사전의 형식을 닮았으며 단행본처럼 읽힌다.

### 잡학사전

벤 쇼트의 『나의 잡학사전』(장석봉 번역, 을유문화사, 2006)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번역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원제 ‘Schott’s Original Miscellany’ 안에 들어 있는 ‘미셀러니’라는 말 그대로 이 책은 온갖 잡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 사실, 목록, 지식 등을 모아놓은 책이다. 저자는 그런 것들을 주제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미있게 모아놓았다.” 미셀러니는 흔히 ‘에세이’(중수필)와 구별되는 경수필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가 갖고 있는 영한사전은 ‘혼합’, ‘잡동사니’, ‘문집’, ‘잡록(雜錄)’ 같은 뜻만 새긴다.

『나의 잡학사전』에는 골프의 타수, 월드컵 축구,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세계의 정보기관, 영화 007 시리즈, 음악용어, 올림픽 개최도시, 도량형 같은 정보가 압축돼 있다. ‘자유의 여신상’ 항목은 여신상 각 부위의 크기와 함께 받침대 현판에 새겨진 엠머 래저러스의 시구를 전한다. “나에게 다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바닷가에 겹겹이 지쳐 쓰러진 가엾은 이들을, 거처도 없이 폭풍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황금의 문 옆에 나의 등불을 들리라.”

이 책의 한국어판은 영어판 원서의 내용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고친 독일어판의 전례를 따른다. 참고로 『벤 쇼트의 영국박람회』라는 제목의 일본어판은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어판은 저자의 양해 아래 지나치게 영국적인 내용을 덜어내고, 그 대신 우리와 관련된 것을 집어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넣었다. 월별 오늘의 역사에서 그러한 각색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의 역사 9월’을 보면, 2002년 9월 8일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1899년 9월 18일에는 인천-노량진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1987년 9월 24일에는 우리나라와 부탄이 외교관계를 맺었다.

더러 눈에 띄는 오탈자는 표제에 들어간 ‘사전’을 무색하게 하는 편집 실수다. ‘대한민국의 끝’(14쪽)에서 한반도(육지)의 동·서·남단은 전부 오자가 났다. 또 ‘각국의 수도 2’(73쪽)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확한 북한의 정식 명칭이다. 항목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하지 않았지만, 찾아보기가 사전식 배열의 구실을 한다. 필자도 편역자와 마찬가지로 벤 쇼트가 찾아보기의 제사로 인용한 줌 캠벨 경의 말에 동감한다. “나는 책에 찾아보기를 신지 않고 출판한 저자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특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그런 과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엔사이클로넛의 『천하무적 잡학사전』(이규원 옮김, 좋은생각, 2005)은 일본판 잡학사전이다. “잡학계의 백과전서파를 지향하는 일본 최고의 상식마니아 문필가 집단”인 엔사이클로넛은 무려 1천 가지 잡학을 이 책에 담았다. 한국어판은 이 중 445가지를 선별해 수록했다. “349 국기 디자인에 별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별 자체에 담긴 영원과 희망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

로 든다. 한밤중 환하게 빛나는 별은 희망을 뜻하며 건국이나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별을 신성시해온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다. 미국 성조기의 영향을 받아 국기에 별을 그려 놓은 나라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기에도 별이 곧잘 사용되었다.

“402 지휘자 중에 유독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미국의 아틀라스 박사의 견해를 빌려 지휘자의 정신적인 충족감과 지휘할 때의 역동적인 동작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통제력 덕분이라는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직업과 평균수명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직업적 자기 통제권이 있기 때문이다.”(정혜신, 『삼색공감』, 계마고원, 2006)



별난 사전의 고전

엠브로즈 비어스 『악마의 사전』(이동진 옮김, 우신사, 1982)은 이 분야의 고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골기질이 다분했던 비어스의 논리와 유머는 우리의 상상을 사뭇히 뛰어넘는다. 기존의 습속을 신랄하게 비꼬는 『악마의 사전』에 등재된 낱말과 그 풀이를 몇 개 인용한다.

가난(poverty) [명사] 개혁을 주장하는 쥐들의 이빨을 갈기 위해 마련된 줄. 가난을 없애겠다고

하던 입안(立案)의 횡수는 가난에 고통 받는 개혁 주의자들의 숫자에다가 가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학자들의 수효를 보탠 것과 같다. 이 가난의 희생자들의 특징은, 온갖 미덕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과 자기네와 같은 가난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번영의 땅으로 자신들을 데려다 주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 따위 들이다.

**사전**(辭典 dictionary) [명사] 언어의 자유로운 성장을 억제하여 그 언어를 탄력성 없는 것으로 고정시키고자 생각해낸 문필에 관한 악랄한 조작. 단, 본 사전은 예외로 지극히 유익한 저작(著作)이다.

**인용**(引用 quotation) [명사] 남의 말을 잘못 되풀이하는 행위. 잘못 되풀이된 말.

**인정하다**(認定 acknowledge) [타동사] 고백하다. 서로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실을 사랑할수록 갖추어야만 될 최고의 의무인 것이다.

**평화**(平和 peace) [명사]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전쟁과 전쟁 사이에 존재하는 속임수의 기간.

플로베르의 『통상 관념 사전』(진인혜 옮김, 책세상, 2003)은 『악마의 사전』과 비슷한 부류다. “모든 단어들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사용되지 않는” 『통상 관념 사전』에선 플로베르의 해학과 풍자정신이 돋보인다. 여기서도 낱말 몇 개와 그 풀이를 옮겨본다.

가난한 사람 그들을 돌보는 것은 모든 덕행을 대신하는 일이다.

부도덕 이 단어를 잘 발음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

사전 비웃을 것—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악마 ‘악마처럼 지독한 추위이다’ 라는 표현에 서만 사용할 것.

저자 사람들은 저자들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 헛집은 상식의 오류

발터 크래머와 피츠 트렝클러의 『상식의 오류 사전』(박영구·박정미 옮김, 경당, 2000)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가 무난한 수용 자세일지 싶다. 저자 두 사람의 관점에 큰 문제가 있어서다. 또한, 두 사람은 적잖이 상식의 오류를 잘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적한 ‘식민지’ 관련 상식의 오류만 해도 그렇다.

### 식민지1 유럽만이 식민지를 개척했다?

“비유럽인들이 개척했던 식민지가 예컨대 대영제국의 규모로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다는 것인가? 맞다. 아시아인들은 식민지를 개척할 역량이 부족했다. 19세기 초반 아프리카 대륙을 쪼개 나눠 갖기 위한 회담을 연 유럽의 열강 7개국과 같은 동업자 정신도 없었다. “만약에 유럽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나침반을 발명하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법을 알아냈다면, 유럽인들은 오늘날 황색 인종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예수가 아니라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졸렬한 가정이지만,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는 상식을 실증하는 사례로는 충분하다.

식민지2 서양의 식민지 보유국들은 천연 자원을 식민지에 의존했다?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서구의 산업 국가들은 식민지의 천연 자원에 의지하지 않았”고, “유럽의 정복자들은 석유와 양털이 아니라 금과 비단을 구하려고 길을 나섰다.” 금은 천연자원이 아니라 그저 귀한 금속인가 보다. 유럽의 정복자들이 “원료와 무더기 물건을 가져올 마음도, 배에 실을 공간도 없었다”면, 식민지 개척을 뭐하러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3 서양의 식민지 보유국들이 식민지를 가진 것은 판매시장이 필요해서였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와 달리, 어느 시대에도 식민지는 판매 시장으로서 갖는 가치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도대체에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만들기에 혈안이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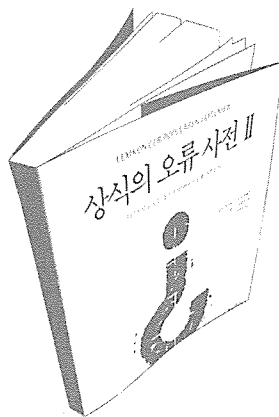
식민지4 서양의 식민지 보유국들이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룬 것은 식민지 덕분이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서양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식민지가 가졌던 중요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아하, 그럼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단지 무료함을 달래려고 취미로 식민지를 만들었나 보다. “식민지가 많을수록 경제가 더 허약해지고, 식민지가 적을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제국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구나! 그래도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어째서 끊임없이 식민지를 확보하려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식민지는 군사적 거점이나 남아도는 관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으로서 아마도 쓸모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밀지는 사업이었다.” 아, 그랬구나! 식민지는 단지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훗날 핵 실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네.

『상식의 오류 사전』(박정미 옮김, 경당, 2002)는 저자는 한 사람이 늘었으나, 번역자는 한 명으로 줄었다. 공저자 중 한 사람인 피츠 트랭클러의 우리말 표기가 피츠 트랜클러로 바뀌기도 했다. 어쨌든 유럽 제국주의자의 후손들은 일본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반성적 성찰에 귀 기울일 일

이다. “나는 결국에는 서양 여러 나라들의 식민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송태욱 옮김, 사회평론, 2001)



중지와 백과사전의 결합

이동준의 『위트 상식사전 Special』(보너스, 2006)은 비범하고 기발하고 유쾌한 반전을 추구한다. 위트는 “사물을 신속하고 지적인 예지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이 기쁘게 즐길 수 있도록 교묘하고 기발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는데, 이 책에 실린 위트는 위트와 반전이 좀 약하다. 때로 진부하기까지 하다. 「마을버스」만 해도 거의 1970년대 <웃으면 복이와요>의 콩트 수준이다.

도널드 씨가 화가 나서 숨을 쉰씩 몰아대며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고 아내가 묻자, 도널드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까지 계속 버스를 따라 달려왔어!”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덕분에 1달러를 아꼈으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지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그건 그래. 하지만 생각해보라고. 택시 뒤통무니를 따라서 달려왔다면 12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고!”

네덜란드의 저술가 마티아스 반 복셀은 “풍자와 백과사전은 힘을 잃었다”고 진단한다. 둘 다 절망적인 노력을 시도하나, 도덕과 방법론은 이를 따라주지 못한다. 어리석음만이 위세를 떨칠 뿐이다. 이런 까닭에 풍자와 백과사전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게 된다.

반 복셀은 “풍자로서의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이경식 옮김, Human & Books, 2005)을 통해 현재의 규범, 다시 말해 자신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선과 악의 대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편으로는 도덕성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머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상이한 가치가 병존한다는 모순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싶어 한다. 이때 “풍자는 부조화를 화려하게 꾸미려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신화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역설적인 장치이다.”

또한, “백과사전으로서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은,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종교와 형이상학, 그리고 과학이, 인간 지식

의 발전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정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심지어 역사까지도 영원한 어리석음과 맞서 싸우려는 수많은 헛된 시도들 가운데 하나라고 파악한다.”

다시 말하지만, 별난 사전들이 주장하는 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고 여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다. 그리고 이따금 해학이 넘치는 대목에서 잠깐 웃고 즐기면 된다. KIA